

대 중 화 문 고
중 한 대 역



大中华文库

汉韩对照

金瓶梅

금병매

V

大中华文库

汉韩对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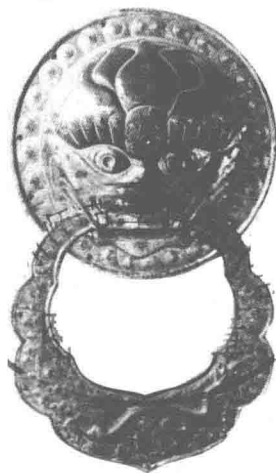
대중화문고

중한대역

金瓶梅

금병매

V



(明) 兰陵笑笑生 著

[韩] 赵诚出 译

난능소소생 지음

조성출(한국) 옮김

안의운, 최옥실 교열

外文出版社

외문출판사

《金瓶梅》写了中国 16 世纪一位暴发户的个人发迹史和家庭生活史。小说的主人公西门庆原本是一个开药材铺子的商人，他通过行贿来勾结官府，然后又倚靠官府包揽词讼，巧夺民财，迅速地积累财富，最后用金钱开道，登上了仕途。另一方面，他在家庭生活和个人生活上，又极度奢侈，纵欲无度，和众多的女子有淫乱关系。这使他的身体大大受到了伤害，最后暴病身亡。他原来聚敛的钱财，在他死后迅速地落入了他人之手。他那些漂亮的妻妾也分别有了新的归属。《金瓶梅》的出现，标志着中国古代的长篇小说从内容到形式都走向了成熟。

《金瓶梅》는 중국 16세기 한 벼락부자의 입신 출세 과정과 가정 생활사를 묘사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서문경(西門慶)은 원래 약재가게를 경영하는 한 상인이었는데 뇌물을 써서 관청과 결탁하고 또 관청에 의거하여 소송을 독점하고 서민들의 재물을 수탈하여 손쉽게 재산을 긁어모았으며 나중에는 금전으로 길을 열어 벼슬길에 오른다. 한편 그는 가정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 극도로 사치하고 육욕을 절제하지 못해 많은 여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그는 건강을 크게 해치고 마침내 급병에 걸려 죽고 만다. 따라서 그가 그토록 긁어 모은 금전과 재산은 그의 죽음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그의 어여쁜 처첩들은 뿔뿔이 남에게 넘어간다. 그가 살았을 때는 신변에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가 일단 죽고 말자 이 친구들은 앞을 다투어 속임수를 써가며 그의 재물을 탈취해간다.

《金瓶梅》의 탄생은 중국 고대의 장편소설이 내용에서 형식에 이르기 까지 모두 성숙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大中华文库》汉韩对照版书目

第一批 (10种)

《周易》	《老子》
《论语》	《孙子兵法》
《孟子》	《庄子》
《水浒传》	《西游记》
《三国演义》	《红楼梦》

第二批 (10种)

《诗经》	《荀子》
《楚辞》	《史记选》
《唐诗选》	《唐宋文选》
《西厢记》	《牡丹亭》
《金瓶梅》	《聊斋志异选》

第三批 (5种)

《宋词选》	《元曲选》
《天工开物》	《儒林外史》
《老残游记》	

绵延不绝、奔流入海的黄河，哺育了中华各族儿女，是中华民族的母亲河。图为黄河上游的壶口瀑布。

굽이굽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황하는 중화 민족의 어머니의 젖줄과도 같은 강이다. 그림은 황하 상류의 호구 폭포이다.



国家出版基金项目
NATIONAL PUBLISHING FUNDATION

大中华文库

대중화문고

目 录

- 第六十八回
应伯爵戏衔玉臂
玳安儿密访蜂媒 1986
- 第六十九回
招宣府初调林太太
丽春院惊走王三官 1930
- 第七十回
老太监引酌朝房
二提刑庭参太尉 1964
- 第七十一回
李瓶儿何家托梦
提刑官引奏朝仪 1986
- 第七十二回
潘金莲捋打如意儿
王三官义拜西门庆 2012
- 第七十三回
潘金莲不愤忆吹箫
西门庆新试白绫带 2050
- 第七十四回
潘金莲香腮偎玉
薛姑子佛口谈经 2076
- 第七十五回
因抱恙玉姐含酸
为护短金莲泼醋 2098
- 第七十六回
春梅姐娇撒西门庆
画童儿哭躲温葵轩 2148
- 第七十七回
西门庆踏雪访爱月
贲四嫂带水战情郎 2196



차 례

제 68 회

정애월이 색을 팔면서 비밀을 누설하고
대안이 비밀리에 문씨 아줌마를 찾아가다 1897

제 69 회

임태태가 처음으로 초선부에서 손님을 맞고
왕삼관이 질겁하여 비춘원에서 뺑소니치다 1931

제 70 회

하태감이 서문경에게 조카를 부탁하고
두 천호가 함께 주태위를 배알하다 1965

제 71 회

이병아가 하씨 집에서 꿈에 나타나고
제형관이 입궐하여 천자를 배알하다 1987

제 72 회

반금련이 여의를 두들겨 패고
왕삼관이 서문경의 양자가 되다 2013

제 73 회

반금련이 '가버린 사람' 을 저주하고
서문경이 흰 비단 띠를 시험해보다 2051

제 74 회

반금련이 음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설비구니가 황씨의 딸 이야기를 하다 2077

제 75 회

신이저가 애매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반금련이 잘못을 감추려고 소란을 피우다 2099

제 76 회

춘매가 서문경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화동이 울면서 온규헌을 고발하다 2149

제 77 회

서문경이 눈길에 정애월을 찾아가고
분사의 마누라가 서문경을 받아들이다 2197



目 录

- 第七十八回
林太太鸳鸯再战
如意儿茎露独尝 2230
- 第七十九回
西门庆贪欲丧命
吴月娘丧偶生儿 2280
- 第八十回
潘金莲售色赴东床
李娇儿盗财归丽院 2328
- 第八十一回
韩道国拐财远遁
汤来保欺主背恩 2348



차 례

제 78 회

임태대는 또다시 서문경을 받아들이고
여의는 혼자서 서문경의 뜬질을 맛보다 2231

제 79 회

서문경이 지나친 음욕으로 목숨을 잃고
오월랑이 남편을 잃고 유복자를 낳다 2281

제 80 회

반금련이 색을 팔아 사위 품에 안기고
이교아가 재물을 훔쳐 유곽으로 돌아가다 2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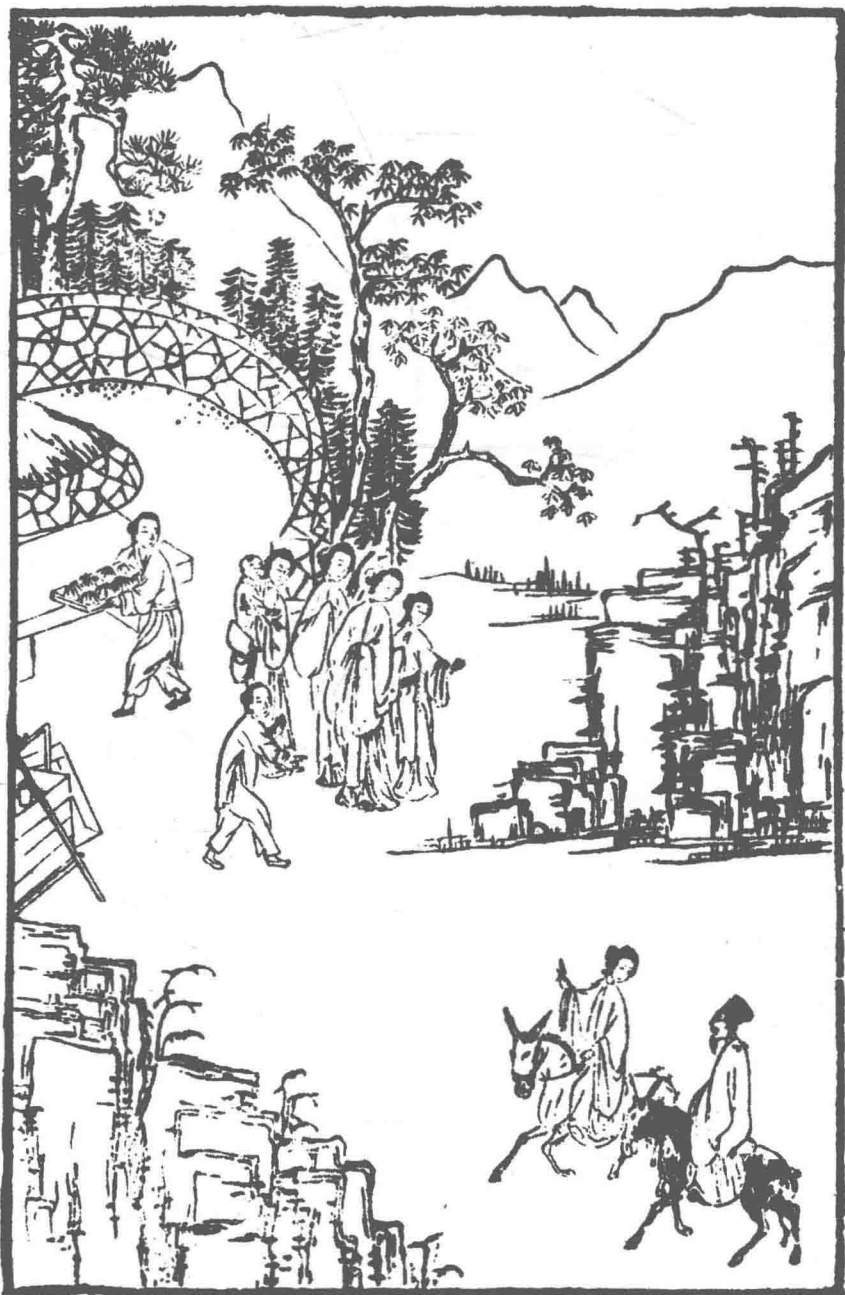
제 81 회

한도국이 재물을 훔쳐 뺑소니치고
내보가 주인을 속여 배은망덕하다 2349

주 해

2367





第六十八回

应伯爵戏衙玉臂 玳安儿密访蜂媒

词曰：

钟情太甚，到老也无休歇。月露烟云都是态，况与玉人明说。软语叮咛，柔情婉恋，熔尽肝肠铁。岐亭把盏，水流花谢时节。

——〔翠云吟半〕

话说西门庆与李瓶儿烧纸毕，归潘金莲房中歇了一夜。到次日，先是应伯爵家送喜面来，落后黄四领他小舅子孙文相，宰了一口猪，一坛酒，两只烧鹅，四只烧鸡，两盒果子，来与西门庆磕头。西门庆再三不受，黄四打旋磨儿跪着，说：“蒙老爹活命之恩，举家感激不浅。无甚孝顺，些微薄礼，与老爹赏人，如何不受？”推阻了半日，西门庆止受猪酒：“留下送你钱老爹罢。”黄四道：“既是如此，难为小人一点穷心无处所尽。”只得把羹果抬回去，又请问：“老爹几时闲暇？小人问了应二叔，里边请老爹坐坐。”西门庆道：“你休听他，哄你哩！又费烦你，不如不央我了。”那黄四和他小舅子千恩万谢出门去了。

到十一月初一日，西门庆往衙门中回来，又往李知县衙内吃酒去。月娘独自一人，素妆打扮，坐轿子往乔大户家与长姐做生日，都不在家。到后晌，有庵里薛姑子听见月娘许下他初五日念经，拜血盆忏，于是悄悄瞒着王姑子，买了两盒礼物来见月娘。月娘不在家，李娇儿、孟玉楼留他吃茶，说：“大姐姐往乔亲家做生日去了。你须等他来，他还和你说话哩。”那薛姑子就坐住了。潘金莲思想着玉箫告他说，月娘吃了他的符





제 68 회

정애월이 색을 팔면서 비밀을 누설하고 대안이 비밀리에 문씨 아줌마를 찾아가다

(머리시 삭제)

서문경은 이병아를 위해 소지를 올리고 나서 반금련의 방에 가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아침 먼저 응백작 집에서 수면을 보내 왔다. 그리고 황사가 자기 처남 손문상을 데리고 서문경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돼지 한 마리, 술 한 독, 구운 거위 두 마리, 구운 닭 한 마리, 과일 두 상자가 선물이었다.

서문경이 선물을 사양하자 황사는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

“나리께서는 소인의 장인과 처남의 생명을 구해 주신 은인이십니다. 변변치 못한 것이오나 받으셔서 아랫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더없는 영광이겠습니다.”

몇 번 사양하다 마지 못해 돼지와 술만을 받으며 서문경은,
“그렇다면 이것만 받아 두었다가 전주정에게 보내도록 하겠네.”

“나리께서 정 그러신다면 다른 것은 되가져가겠습니다. 한데 언제쯤 여가가 계시는지, 응대인을 통하여 나리를 유곽으로 하루 모실까 합니다.”

“그 녀석이 마구 지껄이는 말을 곧이듣지 말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황사와 그의 처남은 여러 번 머리를 조아린 뒤 돌아갔다.

이날은 11월 초하루로서 교대호 집 맏딸의 생일날이었다. 서문경은 제형소에서 돌아와 그 길로 이현령의 관청에 가서 술자리에 끼어두고 오월랑은 혼자서 상복 차림으로 교대호의 집으로 떠났다.

오후에는 이달 초 닷새 날을 기해 《혈분경》을 읽기로 되어 있는 설비구니가 선물을 두 함지나 가지고 오월랑을 찾아왔다. 마침 오월랑이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이교아와 맹옥루가 설비구니를 접대했다.

“큰형님께서 사돈인 교씨 덕 생일잔치에 가셨어요. 그이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설비구니가 왔다는 말을 들은 반금련은 문득 전날 옥소한테서 들



水药才坐了胎气，又见西门庆把奶子要了，恐怕一时奶子养出孩子来，撵夺了他宠爱。于是把薛姑子叫到前边他房里，悄悄央薛姑子，与他一两银子，替他配坐胎气符药，不在话下。

到晚夕，等的月娘回家，留他住了一夜。次日，问西门庆讨了五两银子经钱写法与他。这薛姑子就瞒着王姑子、大师父。到初五日，早请了八众女僧，在花园卷棚内建立道场，讽诵《华严》、《金刚》经咒，礼拜血盆宝忏。晚夕设放焰口施食。那日请了吴大妗子、花大嫂，并官客吴大舅、应伯爵、温秀才吃斋。尼僧也不动响器，只敲木鱼，击手磬，念经而已。

那日伯爵领了黄四家人，具帖，初七日在院中郑爱月儿家置酒，请西门庆。西门庆看了帖儿，笑道：“我初七日不得闲，张西村家吃生日酒。倒是明日空闲。”问还有谁，伯爵道：“再没人，只请了我与李三相陪哥，又叫了四个女儿唱《西厢记》。”西门庆分付与黄四家人斋吃了，打发回去，改了初六。伯爵便问：“黄四那日买了分甚么礼来谢你？”西门庆如此这般：“我不受他的，再三磕头礼拜，我只受了猪酒。添了两匹白鹇绞丝、两匹京段、五十两银子，谢了龙野钱公了。”伯爵道：“哥，你不接钱尽勾了，这个是他落得的。少说四匹尺头值三十两银子，那二十两那里寻这分上去？便益了他，救了他父子二人性命。”当日坐至晚夕方散。西门庆向伯爵说：“你明日还到这边。”伯爵说：“我知道。”作别去了。八众尼僧直乱到一更多，方才道场圆满，焚烧箱库散了。至次日，西门庆早往衙门中去了。



은 말이 떠올랐다. 즉 오월랑이 설비구니가 구해 준 약을 먹고 잉태를 했다
는 그 말이다. 금련은 요즈음 서문경이 유모 여의에게 손을 대고 있으니 혹
시 여의가 애라도 가지게 된다면 서문경의 총애를 독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몰래 설비구니를 자기 방으로 불러 한 냇을 쥐여 주며, 아이를 낳
을 수 있는 약을 구해 달라고 했다.

오월랑은 저녁때가 되어 돌아왔다. 설비구니가 와 있는 것을 보자 곧 서
문경에게 말하여 이병아를 위해 《혈분경》을 읽는 사례금으로서 다섯 냇
을 받아 설비구니에게 주었다.

초닷새, 이날은 이병아가 죽은 지 49일 되는 날이었다. 설비구니는 이
날 자기의 사부인 왕비구니를 따돌리고 여덟 명의 여승을 데리고 와서 뜰
의 별당에다 포장을 치고 《화엄경》과 《금강경》을 읽고 마지막으로 《혈
분경》을 읽었다. 그리고 밤에는 시아귀회(施餓鬼會)를 가졌다. 이날 서문
경은 화대구와 응백작·온수재 등을 불러 소찬 요리를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 응백작은 황사의 하인을 데리고 와서 초대장을 내어 놓았다. 초
이렛날에 정애월의 집에서 한턱 낸다는 것이다. 서문경은 초대장을 보고
웃으면서,

“초이렛날에는 여가가 없네. 장서촌 집 생일 잔치에 가야 해. 내일은 여
가가 있지만, 대체 누구누구가 오는 건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하고 이지가 참석하며 기녀를 넷 불러
서 《서상기(西廂記)》를 들을 작정입니다.”

응백작이 대신 대답하자 서문경은 황사의 하인에게 잣밥을 먹여 보내면
서 날자를 초 엿새로 바꾸도록 했다.

응백작은 또 황사가 그날 무슨 선물을 사 들고 와서 사의를 표하더냐고
묻자 서문경은,

“가져온 물건을 내가 사양하니까 거둬 빌다시피 하기로 돼지와 술만은
받아두었지. 난 게다가 흰 모시 두 필, 비단 두 필, 은자 50냥을 보태어 감
사하다는 뜻으로 전대인에게 보냈네.”

“형님께서 그자의 돈을 안받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적선을 하신 셈인
데 게다가 옷감 네 필이 어딥니까? 적어도 서른 냇어치는 될 걸요. 부자간
의 목숨을 건져 주었는데도……, 그 녀석 멍잡았지 뭐니까.”

그러면서 응백작은 날이 저물 때까지 잔을 기울이다가 물러갔다.

여덟 명이나 되는 비구니들은 밤이 이슬할 때까지 설치며 도량을 끝내고
망자의 옷가지들을 태운 다음 흠어져 갔다.

이튿날 서문경은 제형소에 나갔는데 그가 나가자마자 왕비구니가 서문



且说王姑子打听得知，大清早晨走来，说薛姑子揽了经去，要经钱。月娘怪他道：“你怎的昨日不来？他说你往王皇亲家做生日去了。”王姑子道：“这个就是薛家老淫妇的鬼。他对着我说，咱家挪了日子，到初六念经。难道经钱他都拿的去了，一些儿不留下？”月娘道：“还等到这咱哩，未曾念经，经钱写法就都找与他了。早是我还与你留下一匹衬钱布在此。”教小玉连忙摆了些昨日剩下的斋食与他吃了，把与他一匹蓝布。这王姑子口里喃喃呐呐骂道：“这老淫妇，他印造经，赚了六娘许多银子。原说这个经儿咱两个使，你又独自掉揽的去了。”月娘道：“老薛说你接了六娘《血盆经》五两银子，你怎的不替他念？”王姑子道：“他老人家五七时，我在家请了四位师父，念了半个月哩。”月娘道：“你念了怎的挂口儿不对我题？你就对我说，我还送些衬施儿与你。”那王姑子便一声儿不言语，讪讪的坐了一回，往薛姑子家嚷去了。正是：

佛会僧尼是一家，法轮常转度龙华。

此物只好供生育，枉使金刀剪落花。

却说西门庆从衙门中回来，吃了饭。应伯爵又早到了，盔的新段帽，沉香色褶，粉底皂靴，向西门庆声喏说：“这天也有晌午，好去了。他那里使人邀了好几遍了。”西门庆道：“咱今



경의 집을 찾아왔다. 왕비구니는 새침해서 오월랑에게,

“마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 설비구니가 혼자서 경을 읽고 사례금을 받아 갔다죠?”

“스님은 왜 어제 오시지 않았소. 설스님 말로는 왕황친 생일에 가셨다 더군요.”

“저런저런, 그 잡년이 거짓말을 했군. 나더러는 날이 하루 연기가 되어 오늘 경을 올리기로 했다 하고는…….”

“스님을 위해서 특별히 무명 한 필을 마련해 뒀으니 가져가요.”

오월랑은 소옥을 불러 어제의 소찬 남은 것을 차려 오게 하고 무명 한 필을 왕비구니에게 주었다. 왕비구니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 뇌까려 댔다.

“그 잡년은 전에 경문을 퇴박을 때도 여섯째마님한테서 몰래 은자를 별도로 받았는데, 이번에 또 나하고 들어서 경을 올리기로 해 놓고 제 혼자 슬쩍 해치우다니.”

“설스님은 스님이 여섯째한테서 《혈분경》 독경료로 다섯 냥을 받았던데…….”

“저는 오칠일날 네 사람의 여승을 데리고 와서 경을 읽어 드렸습니다.”

“왜 그때에는 내게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한테 말이 있었다면 그냥 있지는 않았을 텐데.”

왕비구니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는지 한동안 거북한 채 머뭇거리다가 설비구니를 찾아 나갔다.

이게 바로 비구니라는 불제자들의 근성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입으로는 불경을 외우고 극락을 지껄이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다. 가난한 집의 근심에 잠긴 아가씨를 속이고 부잣집의 다정한 마님을 꼬인다. 앞문으로는 시주한 단가(檀家)를 맞아들이고 뒷문으론 태아를 버리고 사내를 끌어들이며 밀통을 한다.

비구와 비구니는 같은 중
부처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 그 임무.
그것이 애 낳는 것 따위로
아깝게도 법력(法力)을 낭비한다.

서문경이 제형소에서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응백작이 그를 데리러 왔다.

“형님, 시각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황사한테서는 두 번이나 사람이 왔



邀葵轩同走走去。”使王经：“往对过请你温师父来。”王经去不多时，回说：“温师父不在家，望朋友去了。”伯爵便说：“咱等不的他。秀才家有要没紧，望朋友，知多咱来？倒没的误了勾当！”西门庆分付琴童：“备黄马与应二爹骑。”伯爵道：“我不骑。你依我：省的摇铃打鼓，我先走一步儿，你坐轿子慢慢来就是了。”西门庆道：“你说的是，你先行罢。”那伯爵举手先走了。

西门庆分付玳安、琴童、四个排军，收拾下暖轿跟随。才待出门，忽平安儿慌慌张张从外拿着双帖儿来报，说：“工部安老爹来拜。先差了个吏送帖儿，后边轿子便来也。”慌的西门庆分付家中厨下备饭，使来兴儿买攒盘点心伺候。良久，安郎中来到，西门庆冠冕出迎。安郎中穿着妆花云鹭补子员领，起花萌金带，进门拜毕，分宾主坐定，左右拿茶上来。茶罢，叙其间阔之情。西门庆道：“老先生荣擢，失贺，心甚缺然。前日蒙赐华札厚仪，生正值丧事，匆匆未及奉候起居为歉。”安郎中道：“学生有失吊问，罪，罪！生到京也曾道达云峰，未知可有礼到否？”西门庆道：“正是，又承翟亲家远劳致贖。”安郎中道：“四泉已定今岁恭喜。”西门庆道：“在下才微任小，岂敢非望。”又说：“老先生荣擢美差，足展雄才，治河之功，天下所仰。”安郎中道：“蒙四泉过誉。一介寒儒，辱蔡老先生抬举，谬典水利，修理河道，当此民穷财尽之时，前者皇船载运花石，毁